광주 시립예술단체들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의 삶을 그린 국악발레 '명성황후'를 무대에 올린다. 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가 만든 국악발레 '명성황후'

한국 대표 문화 상품 꿈꾼다

29·30일 광주문예회관…시립무용단·국악관현악단 국내 첫 시도

'발레, 국악과 만나다.'

구슬픈 가야금과 아쟁 선율이 흐르자 가녀린 발레리나는 발끝을 꼿꼿이 세우고 슬픔을 표현한다. 북과 장구 등 타악기가 어우러진 음악에 발레리노들은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인다.

고종을 그리워하는 명성황후의 솔로가 이어지고, 무사들의 시험 광경은 파워 있는 군무로 완성됐다.

지난 20일 옛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국악과 발레가 어우러진 조금 색다른 광경이 연출됐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심인택)과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이 야심차게 무대에 올리는 발레 '명성황후'의 연습 모습이다.

이날은 지금까지 개별 연습을 진행해오던 두 단체가 처음으로 국악관현악과 발레 동작의 호흡을 맞춰보는 자리였다. 두 단체 모두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라 약간 긴장된 감도 있었지만 심단장과 김단장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작품을 조율해 나갔다.

오는 29일(오후 7시30분)과 30일(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창작 발레 '명성황후'가 국내 무용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국악발레'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심청', '춘향', '장희빈' 등 한국적 소재의 작품들은 광주시립무용단을 비롯, 유니버설발레단과 국립발레단 등에서 간간히 무대에 올린 적이 있지만 국악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뮤지컬로 만들어져 많은 화제를 모은 명성황후의 삶 역시 연극 등으로는 관객을 만났지만 한 차례도 발레로는 다뤄지지 않은 소재다.

광주를 너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해 광주문예회관은 이번 특별 기획공연 작품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했다.

작품 제작 과정은 '새로운 시도'의 연속이었다. 무용단측은 젊은 국악 작곡가 김대성씨가 작곡을 의뢰했다. 대본은 롱런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와 '대장금 시즌 2'의 대본을 쓴 한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오은희씨에게 맡겼다.

아무래도 가장 복잡한 작업은 안무를 짜는 일. 가장 서양적인 장르인 발레를 국악과 접목시키는 건 만만찮은 작업이었다. 김단장은 정통적인 발레 동작과 한국적 춤사위를 연구하며 동작을 만들었다.

무사시험과 명성황후 시해 장면 등 남자무용수들의 파워풀한 몸동작이 필요한 부분은 태권무와 검도무를 배치했고 남성 단원 이외에 조선대 태권도부와 검도부 학생들을 객원으로 활용했다. 또 화려한 춤사위를 보여줄 김미숙하나무용단도 함께 무대에 선다.

무용단원들은 음악이 완성된 후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 음원을 테이프로 녹음해 매일 밤 8~9시까지 맹연습을 진행했고 김단장은 짬을 내 조선대에서 따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관현악단측 역시 다양한 연주회를 준비하는 틈틈이 연습을 진행했으며 더블베이스, 바이올린 등 서양악기 연주자 6명을 객원으로 참여시켜 음을 풍성하게 했다.

작품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살해되는 명성황후의 모습을 그린 '10월의 붉은 노을은 핏빛 분노' 등 모두 2막 10장으로 구성됐다. 명성황후 역에는 구윤지·조나경씨가 더블캐스팅됐으며 고종 역에는 조성훈·강진구씨가 출연한다. 그밖에 강병창·김선돈씨 등 단원들이 호흡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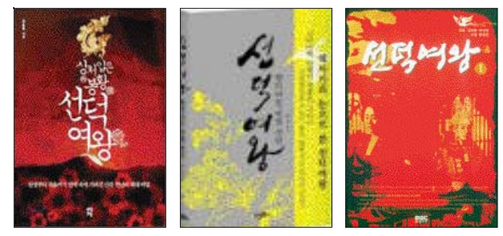
심인택 단장은 "다른 단체 재직시 현대무용팀과 작업을 해 본적은 있지만 발레는 처음인데다 갈라가 아닌, 작품 전체를 끌고 가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기대도 된다"고 말했다.

명성황후 역을 맡은 구윤지씨는 "서양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게 익숙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특히 오늘 라이브 반주에 맞춰 연습을 하다보니 더욱 느낌이 잘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문의 062-510-93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선덕여왕' 드라마 업고 책 봇물



MBC TV 드라마 '선덕여왕'

많은 화제를 모으며 25일 첫선을 보인 고현정·이요원 주연 MBC TV 드라마 '선덕여왕'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선덕여왕을 소재로 한 책이 잇따라 출간됐다.

소설 가운데서는 드라마의 원작인 '선덕여왕'(MBC 프로덕션 펴냄)이 눈에 띈다. 김영현·박성연의 대본을 바탕으로 동아일보 신춘 문예 출신인 류은경이 쓴 '선덕여왕'은 현재 2권까지 나와 있다.

이 책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권에 도전했던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권력 투쟁의 승리 과정으로 그리기보다는 사람과 인재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선덕여왕을 쌍둥이로 설정한 점이 흥미롭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선덕여왕 영상스토리 개발'에 참여하는 등 선덕여왕에 관심을 가져온 한소진씨의 소설 '선덕여왕-사랑과 권력을 가슴에 품은 최초의 여왕'(해냄 펴냄)도 눈길을 끈다.

또 '소서노', '대조영' 등 역사 인물 소설을 꾸준히 발간해온 이기담의 '선덕여왕'(예담 펴냄)을 비롯, '선덕여왕'(박은몽 지음·문예출판 펴냄), '선덕여왕'(제성욱 지음·영림카디널 펴냄) 등 소설이 다수 출간됐다.

김용희(국문학 박사)씨의 '상처 입은 봉황 선덕여왕'(다산초당 펴냄)은 선덕여왕이 반대 세력에게 폐위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김유신과 김춘추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진덕여왕에게 왕위를 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김춘추 세력이 선덕여왕을 반대하는 비담을 비롯한 세력을 축출, 권력을 장악했다고 보는 역사학계의 통설과 다른 입장이다.

역사학 전공자인 이적씨도 '선덕여왕-향기나는 여왕 선덕'(어문학사 펴냄)을 통해 선덕여왕 말년에 일어난 난이 비담이 아닌 김유신 등의 신귀족세력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해석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근대극 선구자 '김우진문학제'

30·31일 목포 용해동 목포문학관

근대극의 선구자 김우진(1897~1926·사진) 선생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김우진문학제'가 30·31일 이틀간 목포 용해동 목포문학관에서 열린다.

장성 출신으로 목포에서 주로 활동한 김우진 선생은 1920년대 표현주의를 직접 작품으로 실현한 유일한 극작가이자 순수문학 동호회 '오월회'를 결성하고 동인지를 발간하는 등 한국 근대문학을 선도한 인물이다.

가수 윤심덕과 비극적 사랑 끝에 현해탄에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영화 '사의 찬미'의 소재가 됐다.

김우진연구회(회장 한옥근) 주관으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문학제에서는 '제4회 김우진전국백일장대회'가 개최되며 평론가 유민영(단국대 석좌교수)씨의 '선구자 수산 김우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 '김우진 희곡'을 연구한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또 지역 중·고등학생 20명에게 '김우진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31일에는 김우진 희곡 공연 영상전으로 '난파'가 상영된다.

한편 목포문학관에는 김우진 선생의 친필 원고와 유품이 전시돼 있으며 목포출신 소설가 박화성씨와 극작가 차범석씨의 유품도 볼 수 있다. 문의 016-603-163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홍만 작 '거울'

앵글에 담은 '일상과 현상'전

동신대 문화박물관 6월 10일까지

동신대 문화박물관은 오는 6월10일까지 일상의 다양한 풍경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일상과 현상'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이성제, 김홍만, 양지애, 이세현, 고영준, 정정호씨가 참여해 도시 풍경, 도로 위 사람 등을 새로운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성제씨는 주변의 일상적인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담아냈고, 김홍만씨는 삭막한 농촌 풍경과 낡은 거울에 비친 도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또 이세현씨는 깨어진 토마토를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깨어진 수박, 꽃, 풀, 선으로 묘사했고, 고영준씨는 도심 건물 옥상을 담담하게 형상화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